



#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제13권 651호

2022년 5월29일(다해)

## 2022년 <사목목표>-절제의 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 2022년 5월 29일 [(백) 주님 승천 대축일]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 <전례 순서>

※ **입당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 **입당 성가 137(부활하신 주 예수)**

※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11

※ **화답**  송  
(후렴) 환호소리가운데 하느님이오르신 다. 나팔소리가운데 주님이오르신 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입니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

※ **복음 환호송**   
알 렐 루 야 알 - 렐 루 야 - 알 렐 - 루 - 야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53

※ **봉헌 성가 210(나의 생명 드리니)**

※ **영성체송**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성체성가 174(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209(사랑하올 어머니)**

## 성모 승천

### ◇마리아 죽음과 승천은 역사적 사실인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죽음을 겪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모님 죽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모님 죽음과 관련해서 서방 교회(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성모님께서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동방 교회(오늘날 정교회)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성모님께서 죽으신 후 승천하셨다는 믿음이 더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기에 앞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성모님은 언제까지 사셨을까요. 의견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 3일 만에 죽으셨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승천 후 15년을 더 사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이 죽으셨다면 어디에 묻히셨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주장도 있고, 에페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한 가지는 어느 곳에서도 성모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으로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리아 죽음과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제 성모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좀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교 교리는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명한 죄 곧 원죄를 범한 대가로 죽음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써 극복했습니다.

새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마리아의 순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를 교회는 또한 새로운 하와라고 부릅니다. 옛 하와는 불순종으로 세상에 죽음을 가져다주었지만 새 하와는 순명으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기서 좀더 생각해 봅니다. 성모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아들을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성모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부터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모님께 '죽음'이라는 표현 대신 '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당신 권능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면, 당신의 혈육을 취하게 하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부활과 승천의 영예를 안겨주지 않으셨을까요. 다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당신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성모님 경우는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 권능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모'승천' 대신에 성모 '몽소 승천'(蒙召 昇天)이라고 썼지요.

이 믿음이 이어지고 깊어지면서 마침 내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 교황령「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stissimus Deus)을 통해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애의 여정이 끝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천상의 영광 안에 받아들여지셨다.'"

이 교리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상 생애의 여정이 끝난 다음'이라고, 또 천상의 영광 안에 '드셨다'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지요.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	빅토리아	한상혁 안토니오	한지우 소화 데레사	한호진, 한우진	최수빈, 한예진
	나나이모	임종찬 요셉	임순복 데레사	박지성	변희영, 이유빈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	빅토리아	유현자 글라라	한지우 소화 데레사		최수빈, 한예진
	나나이모	김은정 체사리아	김여순 켄마	박지성	변희영, 이유빈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성모의 밤 행사 순서

주일 미사 말씀의 전례후

1. 촛불 점화
2. 성모님께 화관 봉헌-사제
3. 신자 봉헌(꽃, 촛불)-봉헌하는 동안 성가
4. 성모님께 드리는 글과, 노래
5. 묵주기도 봉헌
6. 묵주기도 봉헌 후 성찬의 전례 시작

▶ 전례 봉사자 모집

미사 전례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서 봉사와 성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하느님 대전에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안내

미사 중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지향을 가지고 봉헌합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100만단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583,736단

이번 주 : 265단 현재 : 584,001단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우리들의 정성 (2022년 5월 22일)

빅토리아 봉헌금	\$ 286
빅토리아 교무금( 2세대)-유현자, 윤동재	\$ 400
나나이모 봉헌금	\$ 235
나나이모 교무금( 1세대)-박을희	\$ 50
봉헌금 소계	\$ 971
감사헌금-	\$
합 계	\$ 971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mailto: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주교회법규 제2장 5절 157항-

▶ 기도문 안내

5월 성모성월 기도문-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빅토리아**

교우 Business 안내

**빅토리아  
유현자 부동산**

밴쿠버 아일랜드 모든지역  
 (집, 비즈니스, 상가건물)  
 유현자 글라라  
 YouTube: cuvictoria24

250-858-6775

**가드닝  
집수리**

개인주택 레노베이션 전문  
 이석태 요셉

250-889-2500

**HARBORD  
INSURANCE**

자동차 / 주택 / 상업  
 /여행자 보험

문창주 에릭  
 ericm@harbordinsurnce.com  
 150-805 Cloverdale, Victoria  
 250-889-5650  
 harbordinsurance.com

 **PRIMERICA**

RESP / RRSP / TFSA 펀드  
 생명, 덴탈, 여행자 보험  
 변영호 리처드  
 www.primerica.com/richardbyeon

250-893-3355

**J J Acupuncture  
& Massage Clinic**

각종 통증 완벽관리  
 침, 경락마사지, 부항  
 콤보치료  
 JJ Kim 카타리나

250-884-8182

 **FUSHI  
ISLAND**

스시 아일랜드  
 Japanese restaurant  
 사시미. 롤. 우동. 라멘

박성배, 정혜숙 크리스티나  
 #105-1633 hillside ave victoria  
 778-433-8488

**치킨 649**  
  
**CHICKEN 649**

Korean Fried Chicken

심환규 가브리엘, 김희진 가브리엘라  
 2224 Quadra St, Victoria  
 250-590-6491

**WINKS MARKET**

**한국 식품점  
현대 택배**

이동석 안토니오  
 250-885-9497  
 250-360-2838

**Sweet Garden Cake**

딸기생크림케이크  
 롤케이크/쿠키  
 박효진 마리아

카톡: Victoria0903  
 778-679-9464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나나이모**

교우 Business 안내

**Nana Sushi**

스시, 롤, 라멘

김시나 드보라, 김시영 아네스,  
 김대우 시몬

14 Victoria Crescent, Nanaimo  
 250-591-0755 (나나이모)

**SERIOUS COFFEE** 

이순재 요셉  
 이유빈 스텔라

Vancouver Island conference center (VICC)  
 #300-60 Commercial st. Nanaimo  
 250-591-1065

**Dolphin 모텔**

  
**DOLPHIN  
MOTEL**

권 베로니카

1190 Pacific Rim Hwy, Tofino  
 250-725-3377 (토피노)

**Umai Sushi**

**일식 레스토랑**

이효열 오틸리아

Nanaimo North Town Centre  
 4575 Uplands Dr, Nanaimo  
 250-585-8900 (나나이모)

이 광고란은 여러분의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사라, 604-219-5113